

“대국민 선언 강행, 5·18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족적”

광주 시민단체, 부상자회 등 주관 행사 두고 강도높은 비판
 “특전사, 질서 유지 위해 온 것 아냐...헬기 동원 시민 학살”

광주 지역 사회가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와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 행사 강행을 두고 “5·18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족적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광주진보연대 등 113개 시민 단체는 19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를 열어 이같이 비판했다.

범시민대회에서는 주요 단체장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부상자회 등이 행사 강행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펼친 민주묘지 기습 참배, 특전사 단체와의 야합, 최익봉 특전사회 총재의 5·18 왜곡 발언 등을 집중 지적했다.

박봉주 광주전남추모연대 공동대표는 “80년 5월이 폭도와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다. 1995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며 5월 영령들이 이곳 국립묘지로 안장됐다”며 “수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잠든 이곳

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전사가 참배를 했다”며 한탄했다.

이어 “5·18 43년이 지나도록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진상규명 등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이날 진행된 행사로 5·18 역사 속 치욕스러운 족적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도 “부상자회 등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적 임무를 받고 내려와 광주 시민들을 확실한 계엄군들을 피해자로 규정,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며 “너도 잘하고 나도 잘했다”는 식의 양시론을 들며 가·피해자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계엄군)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등 표현이 한마디도 없다”며 “부상자회 등이 생각하는 오월 정신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광진 전 부상자회 사무총장은 최 총재의 ‘계엄군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광주에 투입된 것’이라는 왜곡 발언을 지



광주 113개 시민 사회 단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를 열고 있다.

적했다.

한 총장은 “1980년 5월 질서유지가 필요했다면 경찰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특전사는 질서 유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것에서부터 ‘질서 유지’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행사를 주도한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모자회장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무임승차 연령, 40년만에 손 보나 “만만한게 우리”...노인 반발 거세

지하철 공사 적자 ‘눈덩이’...“이젠 손 봐야”

“고령화 시대에 65세를 노인이라 볼 수 있나?”, “노인이 지하철 더 탄다고 적자가 나는 게 말이 되나?”

대중교통 요금인상 이슈와 함께 수면 위로 급부상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6월부터 40년간 지속됐다.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

향 조정됐고,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공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논란 때마다 노인층의 반발 등에 부딪혀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도 쏘인 실태처럼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각 지자체장이 지하철 적자 보전의 해법 중 하나로 무임승차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다.

김요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주최 ‘노인 무임승승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노인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빈자리에 노인이 더 탄다고 전기세가 더 드냐, 만만한 게 노인이라고 특하면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는데 벼락 맞을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노인이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고 다니면 하루 1만보는 걷는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니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 3000~400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다고 한다”며 “결국 모두가 노인이 된다. 노인 문제는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다. 국가가 지하철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토론회에서 “무임승승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라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건널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기 순손실 9644억원 중 무임수승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자는 약 1조2600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와는 별개로 손실 보전 책임에 따른 서울시와 기재부 간 공방도 치열하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하철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누적된 적자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승호기자

SKY 정시합격 29% ‘등록 포기’...“자연계 의대 이탈”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고려·연세대(SKY) 정시에 합격하고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감된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미등록 총원 결과 SKY 정시 최종 추가 합격자는 총 1343명으로 집계됐다. 1343명이 SKY에 불고도 등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는 SKY 전체 모집정원(4408명)의 28.8%에 달한다.

학교별 등록 포기자는 연세대 643명(38.5%), 고려대 545명(33.2%), 서울대 155명(11.5%)순이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보다 89명 늘었으나, 서울대는 47명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의 경우) 정시에 고교 교과성적(내신)이 처음 적용돼 지원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SKY 계열별 등록 포기자는 인문계 564명(28.1%), 자연계 737명(33.0%)이었다.

연·고대는 인문계(32.1%)보다 자연계(42.9%) 등록 포기율이 높았다. 특히 연세대 자연계는 합격자 663명 중 47.5%인 31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130.0%), 컴퓨터과학과(120.6%), 약학과(116.7%) 등은 모집 인원보다 등록 포기자가 많았다.

임 대표는 “(SKY 자연계 합격자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고대 인문계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 477명(28.8%)에서 올해 499명(32.1%)으로 증가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121명(79.1%), 고려대 경영학과 69명(69.7%) 등이 등록을 포기했다.

임 대표는 “인문계 교차지원에 합격한 이과생들이 서울대 이공계나 의대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대는 자연계(12.2%) 등록 포기율이 인문계(14.4%)보다 낮았다. 임 대표는 “정시에 내신이 처음 적용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 정시보다는 다른 의대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Y 의학계열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 94명에서 올해 63명으로 크게 줄었다.

최이슬기자

GOOD DESIGN KOREA

2023 전남드래곤즈 홈 개막전

K LEAGUE 2 30th ANNIVERSARY

전남은 THE 전남답게

전남드래곤즈 vs FC안양

23. 03. 01 WED 13:30 광양축구전용구장